

북한의 관광 상품 개발 현황과 과제

윤창운 /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처장

1981

재 우리나라는 1945년 이래 국토 분단으로 남북간에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상호 신뢰 회복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경제적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적 교류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조심스러운 탐색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인적 교류 부문에 있어서도 큰 진전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국측의 적극적 접근에 비해 북한측은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도로 폐쇄적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은 봄바람이 불면 얼음을 녹이듯이 자유 세계에서나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新思考와 新思潮를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은 과거 동구권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류를 제외한 서방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체제 수호를 위해 적극적 제한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 교류의 대표적 형태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관광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서방 세계와 인적 교류를 철저히 규제한 나라는 구소련·구동독·북한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두 나라가 몰락한 이유는 정치·경제적인 이유도 있으나, 점진적 개방과 관광객 입국이 오히려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여건 조성을 했는데, 이러한 전례를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관광 전담 기구가 있고 관광 정책이 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은 상당히 부진하고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화 벌이가 요긴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방적 관광 사업을 뚝뚝이 전개하지 못하는 사정은 현단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식사회주의는 도도히 흘러들어오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물결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또는 단계적 수용을 하기 보다는 원천적 봉쇄와 쇠국이 오히려 국가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데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의 경우, 외부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들은 守勢로 나오고 있고, 적극적 관광 교류를 추진하면 이를 平和

功勢로 인식하여 방어 자세를 취하므로, 대북 전략을 수립하거나 관광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북한의 관광 실상

북한은 1953년도 이후 관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있고 그 업무는 주민들의 휴양·여행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 유치보다는 사회 후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처럼 주민을 위한 시설 투자에 집중해 있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 관광 업무에 관심을 보여 관광 호텔을 짓고 국제선 항공로를 개통시켰다. 그러나 그 이용 대상은 서방 세계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광 시설 투자는 내부 투자에 의존했으나 일부 시설(호텔, 골프장, 위락 시설)은 일본 조총련 기업의 투자에 의존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외화벌이의 불가결한 한 분야로 인식하며 외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극도로 폐쇄되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북한에 외국 기업의 투자는 관망 상태에 놓여 있어, 현시점에서는 투자 환경은 밝지 않다. 다만, 북한의 개혁 의지와 개

북한의 관광 시설 투자는 외국 관광객 유치보다는 사회 후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처럼 주민을 위한 시설 투자에 집중해 있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 관광 업무에 관심을 보여 관광 호텔을 짓고 국제선 항공로를 개통시켰다. 그러나 그 이용 대상은 서방 세계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90년대에는 외화벌이의 불가결한 한 분야로 인식하며 외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극도로 폐쇄되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북한에 외국 기업의 투자는 관망 상태에 놓여 있어, 현시점에서는 투자 환경은 밝지 않다.

방 수준에 따라 북한 관광 산업의 발전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관광 수용 태세

관광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관광 자원, 외부와의 편리한 접근, 여행의 자유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접근성과 여행 자유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여행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의 접근이 항공기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의 항공 노선이 부족하여 관광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 관광 수요가 적은 러시아·중국·동구권으로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으나, 서방 세계 운항 노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 내에서도 평양 근교 순안공항이 유일한 대외 창구이며, 동시에 북한내 지방 공항을 연결하는 중심 공항이다. 북한 항

북한의 여행 상품은 자연을 소재로 한 상품이 지배적이고 단체 여행을 제외하고 개별적 여행은 제한을 받고 있어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야간 관광은 바랄 수 없고, 밤을 보내기 위한 유흥장·놀이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공 노선이 순안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 공항은 현재 선덕, 어랑, 혜산, 삼지연공항 등 함경도 지역 공항에 치중하고 있다. 산이 많고 육로 접근이 불편한 북한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지방 여행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운항 횟수가 적어 관광 여행 촉진이나 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철도 여행은 경의선이 이용되고 있는데, 외국인(주로 중국인)이 중국 丹東을 출발하여 평양을 찾고, 그 이남 지역에 있는 개성까지 가 능하나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 또한 버스를 이용한 여행은 주요 간선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것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형태의 도로망을 이용하게 된다.

관광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은 평양-신의주, 평양-묘향산, 평양-남포-과일, 평양-개성-판문점, 평양-고속도로-원산-외금강 루트이다. 북한 도로망의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인근 도로와 접속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여행 상품 판매 실태

북한의 관광을 소개하고 상품화하는 여행사는 북한의 朝鮮國際旅行社(국영)가 있고, 이 여행사와 제휴하는

외국 여행사, 북한 여행 상품을 별도로 기획·판매하는 외국 여행사가 있다. 朝鮮國際旅行社의 대외 홍보와 시장 개척이 극히 미미하고 외국 여행사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북한 상품은 큰 수요가 없다. 최근 마카오·대만·일본·중국의 여행사에 북한 관광 선전과 고객을 의뢰하고 있으나, 항공기 미취항·모객 부진·비싼 관광 요금으로 큰 수요가 없다.

북한이 관광 산업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여건에서 단기간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고, 또한 예산과 기자재 부족은 관광 시설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자본 유치·기술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투자 환경이 불투명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는 부진하다.

그리고 북한의 여행 상품은 자연을 소재로 한 상품이 지배적이고 단체 여행을 제외하고 개별적 여행은 제한을 받고 있어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오늘날 관광 추세는 여행자가 구매를 받지 않고

혼자 또는 소수 인원으로 여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 관광객만 받아들이는 것은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관광객이 즐

거운 체험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행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관광객이 즐겁게 놀고 소비하자면 그 장소와 대상이 많아야 한다.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야간 관광은 바랄 수 없고, 밤을 보내기 위한 유흥장·놀이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대표적 북한 여행 상품을 보면, 北京을 경유한 단체객 여행 상품(패키지 투어)이 많고, 그외 동남아와 일본으로부터 부정기 항공기(전세기)를 이용한 여행 상품이다. 그리고 중국·러시아 여행자의 북한 방문은 주로 친지 방문·생필품 거래를 위해 이루어지는 출입국이며, 일부 단체 관광은 이루어진다.

국경 출입은 丹東-신의주, 集安-滿浦, 臨江-中江, 長白-惠山, 三合-會寧, 圖們-南陽, 圈河-元汀, 하산(러시아)-두만강역 교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로 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도문-남양)를 이용한다. 열차 여행은 京義線 철도를 이용하지만 운행 횟수가 적고 야간 여행을 한다. 그리고 중국 延吉에서 두만강을 건너 나진까지 지난해 하

대표적 북한 여행 상품을 보면, 北京을 경유한 단체객 여행 상품(패키지 투어)이 많고, 그외 동남아와 일본으로부터 부정기 항공기(전세기)를 이용한 여행 상품이다. 그리고 중국·러시아 여행자의 북한 방문은 주로 친지 방문·생필품 거래를 위해 이루어지는 출입국이며, 일부 단체 관광은 이루어진다.

순 이후 관광 열차가 주 1 회 운행하지만 실 적은 좋지 않다.

현재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위해 개발하는 여행 상품은 자연·역사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고, 오락물·휴양·혁명 사적지 방문을 추가한 것이 많다. 예컨대, 외국인 대상 여행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유흥 오락·쇼핑 부문은 크게 부족하여 외화벌이에 한계가 있다.

고대사적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정당화시키고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유적·유물을 관광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단군왕검, 선사시대 고분, 동명성왕능, 공민왕능, 고구려 벽화고분, 외침을 물리친 산성 등이다.

혁명사적지

김일성의 항일 투쟁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을 내외국인에게 공개하고, 관광 루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백두산 주위,

현재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위해 개발하는 여행 상품은 자연·역사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고, 오락물·휴양·혁명 사적지 방문을 추가한 것이 많다. 예컨대, 외국인 대상 여행 상품에는 고대사적지, 혁명사적지, 김일성 가계 이상화, 고건물, 한국동란 관련 장소, 상징물, 위락·문화 시설, 자연 명소 및 자연 생태계 보전 지구, 휴양 및 산악 관광지, 식도락, 쇼핑 등이 있다. 그러나 유희 오락·쇼핑 부문은 크게 부족하여 외화벌이에 한계가 있다.

普天堡, 旺在山 등이다.

김일성 가계 이상화

평양 만경대(김일성 출생지), 백두산 密嶺(김정일 출생지 주장), 회령(김정숙 출생지)을 비롯하여 선대조와 친인척의 출생지 및 활동지 등이다.

고건물

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 발달사를 엿볼 수 있는 사찰, 사당, 기념물, 탑 등 불교·유교 관련 건물로 예를 들면, 묘향산 普賢寺, 금강산 表訓寺, 정방산 成佛寺, 개성 成均館 등이다.

한국동란 관련 장소

50년대 전적지 및 전쟁 기념이 되는 곳으로 예를 들면, 전승혁명사적관, 판문점, 新溪박물관

관, 외금강 영웅고개 등이다.

상징물

사회주의·주체사상을 대내외 선전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예를 들면, 주체사상탑, 개천문, 지하철, 천리마탑, 경기장 등이다.

위락·문화 시설

서커스, 예술공연장, 놀이공원 등 내외국인이 관람하는 곳으로 예를 들면, 교예(서커스)극장, 만경대유원지, 대성산유원지, 대성산동식물원, 만수대예술극장 등이다.

자연 명소

북한을 대표하는 자연 경승지로 예를 들면, 백두산, 칠보산, 금강산, 구월산, 송도원 등이다.

자연 생태계 보전 지구

동식물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생태 관광지로서 소개하는 곳으로 예를 들면,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 금강산, 두만강하구 등이다.

휴양 관광지

건강 관리·휴양·피서지로 이용되는 곳으로 예를 들면, 송도원 해안, 侍中湖, 함흥 麻田 해안, 삼지연 등이다.

북한이 관광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 자원의 잠재력을 볼 때 유망한 분야가 없지 않은데, 자원의 양·질에 있어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발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를 연결해주는 항공 노선이 개통되어야 하고, 관광객 증가에 관련하여 훌륭한 서비스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산악 관광지

단풍 구경, 등반, 야영 등 산악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예를 들면,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등이다.

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 자원의 잠재력을 볼 때 유망한 분야가 없지 않은데, 자원의 양·질에 있어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발견된다. 그리고 이에 앞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용 태세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를 연결해주는 항공 노선이 개통되어야 하고, 관광객 증가에 관련하여 훌륭한 서비스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관광 立國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식도락

내외국인에게 북한의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예를 들면, 평양 음식거리, 냉면 음식점(청류관, 옥류관) 등이다.

쇼핑

평양 시내 외화 상점, 지하 상가, 특산물 상점(평양, 개성) 등이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북한 관광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북한이 관광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

다수 서방 국가들이 북한과 국교 수립을 하지 않아 투자를 미루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 정책의 지양이 선결될 때 대체로 가능하다. 폐쇄 국가는 결코 관광국이 되지 못하며

〈표〉 북한의 관광 시장

시장	관광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여행, 열차 여행(延吉—羅津, 丹東—平壤—開城)으로 이루어지나 항공기·선박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 압록강·두만강 하구에 중국에서 운영하는 소형 유람선이 운항되나 북한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 여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박 5일~1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중국·북한 패키지 여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여행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박 6일 열차관광(북경—개성) 평양, 금강산, 백두산 - 8박 9일 (북경—평양—묘향산—개성) - 9박 10일 (심양—금강산—남포) · 기타 백두산 8景관광, 연길—나진 열차 관광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여행자는 마카오에서 북한으로 취항하는 전세기를 이용하며 8개 여행사가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 여행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臺北—順安(1997년 6월 개통) - 방콕—마카오—順安(1997년 9월 개통) · 여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박 5일, 7박 8일이며 북한의 관광 명소 · 여행 가격 NT \$ 3만 7,000~5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상품 취급 여행사는 10개 이상 되며 中外여행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 관광 수요가 저조하며 연간 3,000명에 이르지 못한다 · 名古屋, 新潟 - 順安 노선에 고려항공 전세기 취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22회 전세기 운행, 1,443명 일본 관광객 유치 · 여행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박 6일(24만~28만 엔) · JTB여행사, 나진선봉지구 시찰 관광 상품 판매(18만~50만 엔) · 萬景峰號 이용 크루즈 상품 판매(일본여행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대상지: 평양, 관광 명소, 판문점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 관광은 7박 8일, 여행 상품 가격 1만 홍콩 달러이며, 지난해에는 10명 이내 소규모 관광단을 송객 · 여행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금강산, 판문점 등 통상적 관광지 이용

최소한 정경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이 관광 입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항공 노선의 개통 및 확장, 여행 제한 구역의 체제,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 허용, 관광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등의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항공 노선의 개통 및 확장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여행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관광 수요는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관광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거나 증가할 때 비로소 외국 항공사들의 북한 취항은 기대된다.

여행 제한 구역의 해제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북한내 여행은 상당히 통제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여행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관광 시장성이 커지고 관광 상품 개발이 촉진된다.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 허용

관광의 기본은 자유로운 여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관광 시장은 제3국보다도 한국(남한)에 지정학적으로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제외시킨 북한의 관광 산업은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에게 최근 거리 시장이며 최대 시장인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

관광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종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관광은 개방을 뜻하고, 개방은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 의도적 평화 공세로 해석하여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꺼려왔다. 그러나 안정된 체제를 갖추면 지나친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관광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구할 수 있다.

북한의 유망 관광 자원·상품

한편, 외화 획득을 통한 경제난 해소책으로 비록 미흡하고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관광 산업에 투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 상품의 양적·질적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주로 정치적 선전·국가 홍보를 겨냥한 이상화 상징물과 과장된 혁명 사적지에 치우치고 있어 외국 관광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일부 자연 경승지에 국한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하고 단조로운 관광으로 관광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내 관광 자원의 자원 가치와 활

현재 북한내 관광 자원의 자원 가치와 활용성을 분석해볼 때, 다음과 같은 관광 자원 개발이나 관광 상품 개발이 유망하다. 즉, 청정자연보전구역의 생태관광 개발, 무공해 식품·별미의 외국인을 위한 식도락 관광 개발, 산악·수상 스포츠 관광 개발, 휴양 관광 개발, 역사 문화 관광 개발 등이다.

용성을 분석해볼 때, 다음과 같은 관광 자원 개발이나 관광 상품 개발이 유망하다.

청정자연보전구역의 생태 관광 개발

북한 전역의 상당 지역이 황폐되고 개발되어 자연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삼림 자원·자연 경관·수질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곳은 유망한 생태 관광(eco-tourism) 대상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생태 관광지로 소개하는 곳은 백두산·묘향산·금강산이며, 이외에 낭림산맥, 백마고원, 함경산맥, 두만강 하구, 강원도 해안호수지대(철새도래지)는 유망한 후보지이다.

무공해 식품·별미의 외국인을 위한 식도락 관광 개발

고산지대와 해안지대에는 무공해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이 생산된다. 건강 식품인 산채·버섯·해산물·음료는 외국인에게

도 기호 식품이 되고 있다. 도시·관광지에서 향토 요리를 판매하고 있으나 대중화하지 못하고 있다.

산악·수상 스포츠 관광 개발

북부 고산지대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6개월간 적설이 가능하여 동계스포츠(스키)가 유망하다. 동해안호수지대(함경도·강원도)의 호수에서는 낚시·배놀이·레크레이션이 가능하며, 해안지대에는 유람선 관광이 가능하다. 이러한 곳은 백두산·개마고원·금강산 북부가 해당된다.

휴양 관광 개발

온천·해안·호수·삼림·섬(도서)은 훌륭한 피서지·휴양지가 될 수 있다. 외국인에게 개방한 곳은 함흥, 원산, 나진, 시중호, 삼일포 등이 있으나 내륙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향후 유망한 곳은 함경도, 강원도 해안, 백두산지역, 청진(경성지구)온천단지, 외금강 해안지대가 될 수 있다.

역사 문화 관광 개발

선사시대, 고구려·고려·조선시대의 유

적지와 사적이 도처에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고구려시대 유적과 불교 사찰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혁명사적지(40,50년대)를 관광 자원화하고 있으나 역사·문화적 가치는 낮다.

맺음말

오늘날 모든 나라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국가의 유망한 산업으로 관광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관광 산업의 발전은 개발의 속도와 수준에 비례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데, 개방과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한 나라들은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반하여, 극도로 폐쇄적이고 원론주의적 나라는 경제·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부문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기간 산업이 취약한 곳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같이 오랜 기간 고립되고 경제가 한계 상황에 이른 곳에서는 개방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활력소를 불어넣어 국

관광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곧 소중한 산업 자금으로 전환되어 기초 산업 투자, 원자재 도입, 식량 생산 부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북한처럼 만성적 재정 적자·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곳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이 경제 자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경 분리에 입각한 남북한간 교류와 투자에도 관광 부문은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하루 속히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 경제의 소생을 가져오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관광 산업은 파폐해진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관광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곧 소중한 산업 자금으로 전환되어 기초 산업 투자, 원자재 도입, 식량 생산 부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북한처럼 만성적 재정 적자·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곳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이 경제 자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경 분리에 입각한 남북한간 교류와 투자에도 관광 부문은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하루 속히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完**